

정낙추 만평

어떻게 여럿이 함께 꿈을 이룰까? 3

편집인의 글

농촌의 미래를 위해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나설 때/구자인 4

특집 / 마을계획, 5년 앞을 내다보는 실천

마을계획과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회고/서정민 12

21세기 문당리 발전 100년 계획 수립의 경험/김경화 18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과 발전계획 수립, 그리고 주민총회/박현미 25

농촌현장포럼과 마을계획/김윤이 33

농촌현장포럼, 마을만들기의 디딤돌/하종중 43

자치분권 시대의 농촌현장포럼과 마을발전계획 수립/노승복 49

청년, 농촌에 살어리랏다

지역의 이정표가 되어드립니다/이준표 56

우리 마을이 달라지고 있어요

상송1리 두리마을 사람들, 주민자치를 시작하다/이창신 66

봉황이 알을 품은 마을, 보령시 신산리 이야기/용미자 72

지상중계 / 2020년 제5·6·7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

마을공동체 활동,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기 80

마을만들기의 출발점, 마을경관 가꾸기 87

함께 짓는 마을건축, 공동체의 삶을 담는 방법 94

정책동향

농촌협약 추진 상황 및 지자체 대응 방안/조영재 102

충남 균형발전 제2단계 1기 사업(2021~25년) 착수와 시사점/한상욱 105

지원센터 활동보고

광역 마을 동아리 육성 지원사업 결과 발표회 108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맞춤형 교육 2·3·4차 109

충남 마을만들기 광역 및 시군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111

공동 직무 연수(하반기) 개최 111

필자 소개 112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현황과 연락처 114

어떻게 여럿이 함께 꿈을 이룰까?



농촌의 미래를 위해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나설 때

구자인/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농촌에서 계획이 작동하려면

편집인은 《농어민신문》 농업마당에 월 1회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에는 〈농촌계획, 민관협치 역량이 좌우한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각종 농촌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첫째, 계획 수립 ‘과정’ 자체가 용역 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둘째,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셋째, 수립된 계획이라도 처음 취지와 달리 변질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중장기 계획일수록 ‘책상 서랍 속 계획’에 그치는 결과가 많다.

앞으로는 청사진 방식의 종합 계획은 작동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가축전염병이나 자연재해, 식량파동, 국제무역 갈등 등 예측이 어려운 위기 상황이 수시로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시급한 개선 과제로 다음의 네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지자체 행정 내부에 각종 중장기 종합 계획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소 기능을 보완하자. 둘째,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당사자가 참여하고 훈련 기회를 더욱 확대하자. 셋째, 기술적으로도 지역주민참여의 새로운 방법론을 많이 시도하자. 넷째, 농촌협약 시대를 대비하여 ‘지자체의 민관협치형 정책 추진 체계’로 시급하게 정비하자.

결국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협치 시스템의 역량을 갖춘 지자체일수록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도 강하고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수억 원의 연구용역비도 아깝지 않고, 각종 계획이 조금씩 작동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책의 실패’도 극복하고 비로소 농촌의 밝은 미래도 꿈꿔볼 수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계획 없이 미래를 설계하기는 더 어렵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농촌의 밝은 미래를 함께 꿈꾸려면

이어지는 11월 칼럼(11월 13일자)에서는 〈농촌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5가지 제안〉을 기고하였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중앙정부 정책 및 농민운동 그룹과 비교하여 편집인이 현실을 진단하고 인식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대략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기하였습니다.

첫째, 농업이 살아난다고 농촌이 재생될 수 있을까? 지금 추세대로 가면 농업이 대농 중심으로 재편되어 농촌은 붕괴할 우려가 농후하다. 둘째, 농촌에는 농민만 살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그랬던 적도 없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셋째, 농민수당이나 공익형 직불제 지원금이 늘어난다고 농촌이 살기 좋아질까? 개인 소득 향상이 농촌다움의 복원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다. 넷째, 도농교류 체험 활동이 농촌에 실제 도움이 될까? 시장경제 방식의 도농교류는 농민을 도시민 ‘종노릇’시키는 꼴이

다. 다섯째, 귀농귀촌이 농촌 인구정책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농촌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고는 귀농귀촌도 관계 인구 논의도 실용적이지 않고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주민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밝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는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고,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관점을 제안한 것입니다.

첫째, 농사짓는 농업인만이 아니라 농촌에 사는 주민으로 확장하여 바라보자. 둘째, 농업을 시장에 맡기지 말고 농촌 지역사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 셋째, 지역사회 조직화 측면에서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넷째,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 움직임에 적극 결합하자. 다섯째, 농촌사회의 심각한 문제 영역마다 다양한 학습 운동을 조직하자.

물론 이런 구호성 제안으로 농촌의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좋은 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울하다 해도 어딘가에 돌파구는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구조적 장벽도 어딘가 빈틈이 있고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 틈을 찾아 작은 희망의 씨앗을 키우고 튼튼한 진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을만들기는 ‘여러 사람의 한 걸음’을 중시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새로운 전환을 꿈꾸며 천천히 전진하는 풀뿌리 주민자치 운동입니다. 마치 담쟁이가 담을 넘어가듯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 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알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담쟁이」, 『당신은 누구십니까』(창비, 1993)

올해 연속기획한 대주제 ‘마을은 우리 모두의 공간’의 네 번째 특집 주제는 ‘마을계획’입니다. ‘마을회관’(봄호)과 ‘마을경관’(여름호), ‘마을건축’(가을호)에 이어지는 마지막 주제에 해당합니다. “마을을 우리 모두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어도 5년 앞을 내다보고’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촌현장포럼사업(지금은 지방이양)을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지원해왔고,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의 첫 단계로 설정하였습니다. 충남은 이에 앞서 2011년부터 착수한 희망마을 1단계에서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주민자치회 전환’ 활동과 연계하여 마을계획, 자치계획, 읍면동 발전계획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행정리 단위의 마을계획, 읍면 단위의 자치계획, 시군 단위의 마을만들기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해본 경험이 미약합니다. 각각의 층위에 맞는 계획 수립의 방법론과 절차, 주요 내용 구성 등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이런 정책동향과 경험을 짚어보고 문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전체 흐름이 깔끔하지 못하고 논의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검증되지 못한 진단과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마을에서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학습자료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여전히 필자 찾기에 어려움이 많지만, 바쁜 가운데 여섯 분이 좋은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 센터장은 ‘보충성 원리’라는 관점에서 행정리 마을계획과 읍면 자치계획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김경화 책임연구원은 ‘21세기 문당리 발전 100년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형로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인터뷰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마을대학과 주민총회 등에 진행촉진가(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한 박현미 대표는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어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정책 수단인 농촌현장포럼과 관련하여 세명의 필자가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처음 기획되는 단계부터 참여한 김윤이 본부장이 상담가 입장에서 사업 취지와 의미를 짚어주었습니다. 아산시 월랑리의 하종중 위원장은 마을 리더 입장에서 농촌현장포럼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소개하는 한편, 마을자치규약 제정에도 이러한 방법론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승복 센터장은 중간지원조직 입장에서 농촌현장포럼의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이를 청양군 활동에 어떻게 적용할지 소개했습니다.

이번 호에는 ‘충남마을넷<https://band.us/@cnmaeul>’을 통해 용미자 시인이 보령시 청라면 신산리 마을을 소개하는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지상중계’ 코너에서는 ‘코로나’(9월), ‘마을경관’(10월), ‘마을건축’(11월)을 다룬 정명진 대표의 대화마당 취재기를 실었습니다. 『마을독본』 특집 주제와 연결하여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정책동향’은 충남연구원의 전문 연구자가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쪽의 광고란에는 『마을독본』 통권 1~4호의 특집 원고들을 다듬어 엮은 단행본 『마을만들기 길라잡이 기본편』(그물코, 2020) 소개도 실려 있습니다. 곧 발간될 예정이니 많이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겨울철 농한기에는 『마을독본』과 『마을만들기 길라잡이 기본편』을 읽고 마을에서 토론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다함께 공부하는 평생학습의 마을만들기’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을사업의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그 경험을 『마을독본』에 투고해주시면 본지를 펴내는 뜻과 가치가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많은 투고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